

찬양위원회 2024년 중점 사업

2023.10.31

1. 이웃과 함께하는 앞마당음악회

1) 현황

- 현재 “목요차나눔” 행사와 함께 앞마당음악회를 상/하반기 각 3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출연자는 우리 교회에서 활동 중인 독창자, 악기연주자들로 구성됨
- 음악회 참석자들은 주로 주변 직장인들과 주민들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회 앞마당에서 휴식을 취하며 음악을 감상하고 있음
- 교회에서 주관하는 음악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출연자들의 선곡에 신경을 쓰고 있음(주로 외국/한국 가곡과 귀에 익은 음악 중심)

2) 제안

- 현재 강남구청에서 시행 중인 “강남행복콘서트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청에서 선정한 다양한 공연팀이 앞마당음악회에서 공연하도록 협력 (공연팀에 대한 출연료는 구청 부담, 가능하면 가페드림 내에서도 공연 모색)
- 음악 등 공연을 즐기는 대상이 교회 성도가 아니고 외부인들이므로 연주하는 음악 장르에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외부인들을 교회 안으로 유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전도를 위한 유용한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
-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구청의 문화예술 공연 장소로 교회 내 장소를 대관하는 사업도 추진

2. 총현음악아카데미 참여 확대

1) 현황

- 현재 우리 교회 성도 대상(타교회 성도 일부 참여)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참여도가 감소함
 - 강사: 약 10명
 - 수강생: 약 45명
 - 수강료: 30,000원/회(50분), 120,000원/월

2) 제안

- 정기적인 모집 홍보(영상, 주간충현, SNS 등)를 통해 교회 성도들의 참여 확대
-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 모색 (강남구청 문화도시과장과 통화 시, 지역 내 불우아동들에게 수강 혜택을 주고 수강료는 구청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 받음)

3. 찬양예배전 찬양인도 개선

1) 현황

- 현재 예배 시작 15분전에 각 찬양대 지휘자들이 1개월씩 순번을 정해 담당하고 있음
 - 7개 찬양대 지휘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마누엘, 할렐루야, 실로암 지휘자는 제외되고 현재 4명의 지휘자가 담당
 - 당초 각 지휘자가 2개월씩 했었는데 부담이 되어 1개월씩 하는 것으로 조정
- 지휘자들이 전면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음 (찬양대 독창자들도 담당하게 함으로 순서가 빈번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)
- 일부 지휘자가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

2) 제안

- 지휘자들이 아닌 찬양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베엘찬양대원 중 찬양팀 (3~4명 정도)을 구성하여 찬양 인도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지휘자들의 부담을 덜어줌
- 싱어팀으로만 구성하고 지금처럼 찬송가를 오르간 반주로 성도들과 함께 찬양
- 필요시 타 찬양대 찬양팀 또는 차세대위 찬양팀들도 순서를 담당하도록 함